

문화계 파문 확산

출판

馬光洙 「사라」

「표현의자유」위축 우려 대책부심

「그속 심하지만 외설이」만아야 의견도

검찰 "문화빙자性の 상품화 왜기"

출간될 예정이고 지난21일 미국에서 출간돼 현재 세계적 신봉을 끌고있는 마돈나의 누드진「섹스」가 국내에서 출간될 움직임을

검찰이 외설시비가 일고 있는 「즐거운 사라」의 작가 馬光洙교수(연세대)와 이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청하대표 張錫周씨를 지난 29일 구속한데 이어 30일에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李元洪)가 일본의 인기배우 미야자와 리에의 누드사진집 「산타 페」(행림출판사 발행)에 대해 관계당국에 제재를 건의하는 등의 상품화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경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잇따른 조치는 가수 겸 배우인 유연실의 누드집이 다음달 출간될 예정인 「즐거운 사라」에 대해 관계당국에 제재를 건의하는 등의 상품화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경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외설시비로 문제가 되고있는 「즐거운 사라」 「산타 페」의 표지와 마돈나의 「섹스」를 파는 외국 서점의 모습.

작품에서는 예술형상의 외설성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는 누드사진을 표현한 것은, 과감하게 도발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관계당국의 조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여러 형태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즐거운 사라」와 관련 「무인 출판인」 2백30여 명이 지난31일 문화작품 표현자유전환회 출판한안 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문화작품에 있어서 성 표현의 한계를 제한하려는 기도는 어느 시대에서나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작품 표현자유전환회 출판한안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문화작품 외설시비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문화계의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인권위원회도 작가의 인신구속이라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소집, 馬교수 구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무인 출판인들의 시각은 문화이나 예술의 외설성과 부는 그것을 감상하는 독자들이나 문화소비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인신구속까지 하면서 법이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무인 출판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소설을 읽은 상당수의 일반 독자들이 「즐거운 사라」가 예술성보다는 외설성의 책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작가가 대학교수의 신분임을 감안할 때 「즐거운 사라」 수준의 표현을 허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참관할 기세인 性的 상품화경향은 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아무튼 「즐거운 사라」와 「산타 페」 「마더스 리스」 관련 당국과 일부 무인 출판인들로는 구정당 공동대책위 사이에 외설의 기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尹正國>

사가 증명하듯 항상 표현의 확대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하며, 서명운동에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